

정읍·금산사 가는 길 뚝 뚫렸다

효천지구 서측도로 조기 개통...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정체 해소 기대

전주시 삼천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전북도교육청 앞 육교개도를 연결하는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돼 정읍·김제 방면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줄어들게 됐다.

시는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면서 통행이 불편했던 전주바물관에서 우림교 구간 육교개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효천지구 서측도로(삼천농수산물시장~육교개도)를 조기 개통했다고 18일 밝혔다.

폭 35m, 길이 1.23km의 효천지구 서측도로가 개통되면서 정읍·김제 방향에서 삼천동·평화동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우림교를 건너지

않아도 돼 교통정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육교개도는 김제·정읍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자 전주 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생활권을 잇는 도로로, 그간 서·남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유입과 웨딩홀, 박물관, 주변 아울렛 매장들을 방문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주말에도 교통정체가 심한 곳으로 손꼽혔다.

뿐만 아니라,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해 그간 육교개교차로에서 전주로 들어오던 군산·익산·임실·남원방향 출퇴근차량 일부도 중언교차로 방향으로 분산되고, 주말 예식장 방문차량

과 모악산 등산차량, 완산체련공원 이용자 차량 등도 효천지구 서측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천지구 서측도로 개통으로 인해 삼천동과 평화동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평균 1.5km 정도의 이동거리가 단축돼 연비절감의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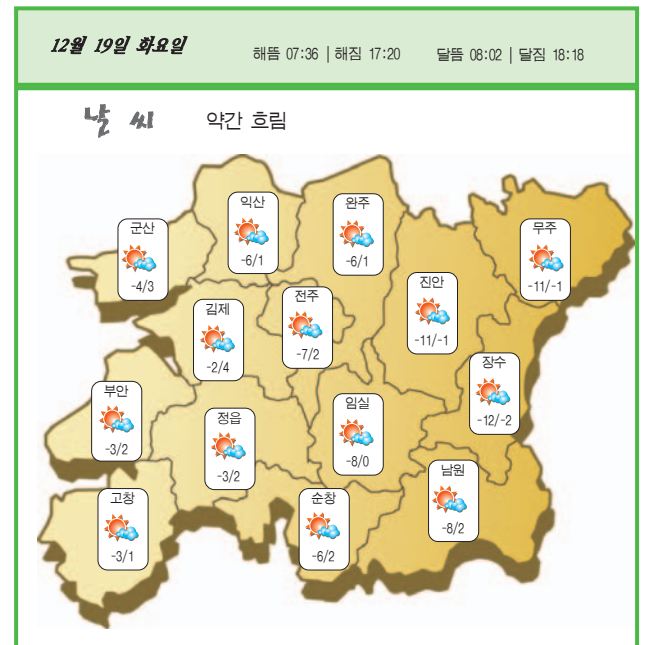
시는 효천지구 서측도로 개통에 이어 오는 2018년 12월 효천지구 준공과 오는 2019년 6월로 예정된 효천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현재 왕복 2차선인 세내교에서 중언동 중언교차로까지 총 길이 3.4km 구간을 폭 20~25m의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초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연결하는 폭 20m, 길이 120m의 교량도 가설할 예정이다. 효천지구 연계도로가 확장되고 교량이 가설되면 교통량 분산으로 향후 서부권과 남부권 교통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효천지구는 총 4,460세대, 계획인구 13,617명으로, 단지개발이 완료되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또, 최근 중언동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완산체련공원과 모악산, 금산사 이용객도 늘고 있다”라며 “효천지구 준공에 앞서 도로 개설 및 확장, 교량 개설을 완료해 교통정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알리기 및 태권문화 이해를 위한 공동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잊지 못할 추억 선물

전북대학교, 100여명 초청
태권도 등 한류문화 체험

“한국의 절경, 정말 아름다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5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알리기 및 태권문화 이해를 위한 공동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8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에서는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주군에서 진행됐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등 유학생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업단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공연 관람 등으로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전통 겨울 놀이인 눈썰매 타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겨울 문화

에 대한 소개도 곁했다.

특히 이날 참여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네팔 학생들은 백운산 전망대에 올라 본 한국의 절경에 감탄을 자아내는 등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윤명숙 사업추진위원장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문화와 정보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교육정책 포럼 열린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시·도교육청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자치’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교육정책 포럼이 19일 오후 3시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올 9월부터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이 ‘지방교육분권과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에 대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청주교육대학교 김용교수가 ‘새로운 학교 운영과 학교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윤희 연구원, 전주시·도교육청협의회 유재장 학사,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 김제중앙초등학교 김윤범 교감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 제정, 교육부 사무 중 과감한 폐지 사무 검토,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전주시·도교육청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하며,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초등생 생존수영 교육 불가능”

김승환 도교육감, 학교현장 혼란 우려 ‘선 긋기’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최근 발표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교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 계획을 보면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 없이 밀어붙이는 인상이 짙다”면서 “만일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려면 사전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편성 여부, 교육 시간, 그리고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설과 관련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전북만 하더라도 학교 수영장은 거의 없고, 공공수영장도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정도

시설로 전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재정지출도 높고, 시민 기초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서울은 가능할까? 서울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교육부장관이 언급한 ‘수능 2회 실시 검토’ 발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이야기하려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 같은 전북교육청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자사고들이 신입생을 일관고와 동시 선발하는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신들의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자사고의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했다.

/김민근 기자

도내 초중고교 전화응대 친절도 ‘양호’

전북도내 초중고교의 전화 응대 친절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777개 초중고특수학교를 비롯해 812개 교육기관에 대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 평균 91.5점의 탁월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민원서비스 모니터링단 4명이 교육기관과 학교별로 2차례 전화모니터링 결과 나온 수치다.

/김민근 기자

14살 소녀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세 명(최수민,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봉은 25일 5월,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